길룡입니다

오늘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 공부 말고 초보자들이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공부법 없나요?

재미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종목만 보고 이렇게

용어만 외우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공부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를 알아야지

경제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 봐야 된다고 하던데

종이신문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저는 아재라

사실 종이신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신문을 읽으면

좋은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제 흐름이 파악이 돼요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해외 경제 동향이랑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정보가 습득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잘 쓰느냐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해당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같은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경제 금융 산업 경제 신문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처음 배울 때 보면

주식에서 모르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 용어로 하면은 더 많아집니다

많이 읽고 눈에 익혀야 습득이 되니까

어휘력도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경제 신문 보는데 논리적 사고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는요 사실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요

본인의 생각과 더불어서

표현까지 잘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라는 것들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와 인터넷 뭐가

더 좋냐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는 종이파입니다

비교를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경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저희가 종이로 된 거잖아요

어렵지는 않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종이신문 딱 카페에 앉아서 읽고 있으면은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탈 때 신문 읽고 있으면

팔은 좀 걸리적거리지만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상 종이신문을 보고 있고

주변에서 시선이 느껴지면

집중해서 더 오래 보게 돼요

대충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신문 구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문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신문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별로

전체를 담아놓은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쿠팡도 있더라고요

쿠팡에서도 종이 신문이

구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잘 찾아보니까

밀리의 서재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책 같은 거 핸드폰이나

탭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종이 신문이랑

동시에 구독 가능하니까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경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뉴스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버 뉴스 들어가시면은 구독 설정이라고

우측에 나와요

그러면 구독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경제 신문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를 보실 때는

다른 것들은 저는 조금 선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뜨기 때문에

경제 공부 안 하다가 하는 거라서

사실은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나 여기 거 관심 있는데

패션 관심 있는데, 게임 관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구독을 해놓다 보면은

사실 제가 봐야 될 정보들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경제 신문사들만 조금 구독을 하시고요

추가로 일간지 말고

주간지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경, 매경,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꼭 추가를 하셔서 시간 되실 때마다

이동하실 때마다 보시면 좋습니다

경제신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나 많은데

뭐 다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보시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일간지에서 나오는 정보와

주간지에서 나오는 정보와

월간지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다릅니다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딥하게, 깊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에 해당되는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놓습니다

경제 공부를 할 때는 내용, 정보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라는

스토리를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 스토리를 공부하다 보면

기억에 오래 갑니다

저희 어렸을 때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기억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기억이 오래 가고

나중에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로는 정보를 취득하고

주간지로는 이야기를 만들고

월간지에서는요 경쟁을 하면 됩니다

월간지는 일반적으로 찬/반이 싸우는 내용들이

같이 올라와요

왜 찬/반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좋냐? 나쁘냐?

항상 얘기 나오거든요

야 나는 전기차 나와도 안 타

반대로 나는 전기차가 앞으로의 대세라고 생각해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과

아니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수자와 매도자

찬성과 반대자에 대한 흐름들을

꾸준하게 읽는 연습을 하면

투자할 때는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신문 구독하는 걸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일간지

그러니까 경제 신문 일간지 구독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서

종이류로 구독을 하셔도 되고

나는 종이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나는 폼 아니어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셔서

구독 설정 꼭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비쌉니다

주간지를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 사신다라고 하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5천 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52주니까 거의 25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간지나 경제 뉴스 구독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공짜로 주간지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가 펀드랑 ETF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말씀드렸는데

펀드랑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는 금융투자협회랑 펀드 슈퍼마켓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ETF는 ETF CHECK라는 사이트 해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시면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데로 들어오고요

펀드 슈퍼마켓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품들도 나오는데

펀드 연금저축 IRP ETF 다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는 펀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펀드 검색이라는 화면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일반 펀드다 연금 펀드다

국내 주식이다, 국내 채권이다, 해외 주식이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용 규모는 어느 정도 크면

좋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수익률이 의외로 별로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거는 1,000억에서 5,000억 사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험 등급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높은 위험이나

매우 높은 위험 중에 고르시면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다소 높은 위험 정도가

적절하게 안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위험 등급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보통이나 다소 위험 요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운용사가 보면

굉장히 이런 게 많습니다

국내 주식 규모가 제일 큰 회사들

채권 규모가 큰 회사들은 쭉 나오는데

특정 자산운용사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주식이다 채권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인기가 많은 회사들을 고를 것 같은데

우선은 국내 주식에서 골라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태극마크 기억나세요?

태극마크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극마크가 첫 번째 거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두 번째 거도 4개

3개, 3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죠

제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쭉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수익률만 보세요

최근 3개월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이 평가 등급 태극기가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은 수익률은 제일 좋습니다

10.86% 6개월에 13% 정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급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다

웬만하면 4개 이상 중에 고르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미래에셋에서

발행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주식 혼합형이고요

초대형급에 들어갑니다

2800억 정도의 규모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1년 수익률이

17% 정도 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또

고배당 펀드 같은 경우에도

태극기가 4개인데 1년 수익률을 보면

18% 태극기가 많아도요

안전하게 수익률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ETF 비교할 때는요

ETF 체크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눌러보시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

마켓 이슈랑 테마 모아보기 있잖아요

배당이다 파킹이다 더 보기다

이런데 앞에서 제가 배당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KB STAR라는

200고배당커버드콜ATM이라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총 연의 8.38%를 준답니다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주식처럼 차트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까 괴리율은 낮아야 된다

0.03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거래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ETF들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배당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K-ETF, US-ETF라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서

어떤 거 있지? 라는 건데

주식이다 채권이다 부동산이다

원자재다 통화다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다 나오고요

또는 나는 우리나라 말고

그냥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걸

조금 골라보고 싶은데 뭐 있어? 그러면

그냥 미국 상장 ETF로 하면

쭉 그냥 종류에 따라서만 나눠지는데

여기에 보면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에서 수익률 배당 자금

유입 투자자 등등등이 있지만

이 안에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본다라고 하면

ETF 전체 그다음에 상품도

이 안에서 또 다시 고르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상장돼 있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한 것들은 뭐 있을까?

ACE, SOL, TIGER, KODEX

우리나라와 해외 ETF들도요

순위가 공통적으로 같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수익률 상위부터 하위까지 비교 가능하고요

배당 들어가시면 배당 또 순익이 쭉 나옵니다

연간 배당률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TIGER 미국나스닥 100커버드콜(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주죠

아래쪽에 12 이하 건을 가도요

5% 이상 대부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기관한테 인기 있는 거

외국인한테 인기 있는 거

개인한테 인기 있는 거

기관과 외국인들도 ET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ETF를 골라보는 것도

안전한 ETF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높은 순위,

괴리율 낮은 순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알려드렸던 거 참고해 보시고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펀드와 ETF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길룡에게 물어봐 오늘의 질문입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겁니까?

어렵죠?

주식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기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쌀 때 사서요

비싸지면 팔면 됩니다

근데 이 쌀 때 산다는 게 대부분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이 쌀 때냐

비쌀 때 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투자하는데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데 주식을 하다보면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평균선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뭐냐?

추세라는 것과 방향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건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인 건지를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게 있고요

추세선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지지선도 마찬가지고 저항선도 마찬가지고 추세를 나타낸 선이 있거든요

그럼 추세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저점 주르륵 잇던지

고점 주루룩 잇던지 이걸 연결한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선을 그어 놨는데 이 주가가 추세선 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

추세선 보다 아래에 있다

떨어지는 추세

근데 떨어지는 추세에도 저희가 열심히 사 봐요

그럼 제가 손해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추세선을 그어 놓고

이 위에서 놀 때 저희가 열심히 사고팔고를 하다보면 보면 수익이 납니다

두 번째 지지선이라는 건데 뭐 이름에도 딱 나오잖아요

지지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점

이것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런 심리적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고요

지지선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야 이 때가 제일 싸다 라는 것 때문에 매수 주문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지지선에 가까이 올 때 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웃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선입니다

저항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항

야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더 이상 오르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게 저항선이고요

이 때 가격 상승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요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지선일 때 사서

저항선에 대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파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우선 주식투자방법 이구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알려 드렸죠

주가가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적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건데

기간은 5일, 20일, 60일, 120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일, 60일 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업종 마다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일선도 한번 보고 60일선도 한번 보고 하다 보면

이 선에서 자꾸 닿고 다시 올라가고 닿고 다시올라가고를 반복하네?

그러면 그때를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야 나는 무조건 20일이야 60일이야 120일이야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하셔도 되고요

첫번째 이렇게 해서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밑에 좌측에 있는 게 빨간 선은 저점끼리 연결한 거고요

우측에 있는 파란 선은 고점 끼리 연결을 한 겁니다

저점끼리 연결을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죠

우측 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승추세

고점 높을 때를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하락추세인데 이 추세라는 것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변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주기적인 게 어느 정도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해야 되고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트를 보시고

저점끼리 또 한 번 연결해 보고

고점끼리 한 번 보고 이런 것들을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뭐야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막대기도 있고요

파란색 막대기도 있죠

걔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잠깐 했다가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추세선인데 볼린저 라는 것은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밴드입니다

그 아까 음영으로 표시된 것 보이시죠?

이게 상단밴드와 하단 밴드를 표시해 놓은 건데

평균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표준편차 2

그 다음에 상단은 곱하기 2 해서 더하기

그 다음에 하단은 곱하기 2 해서 빼면 하단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웃긴게 표준편차를 넣어서 상단밴드와 하단 밴드를 해보니까

주가가 상한선과 상한선에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랍니다

그러면 이 밖으로 나갈 확률은 5%밖에 안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 하단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가 지지선인 거예요

그러면 사야죠

그런데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점점 좀 가까워 오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납니다

이 회사 기업의 주식이 좋대, 앞으로 더 간대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기술적으로 보니까 경험치로 보니까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면

지지선과 저항선 안에서

사고팔고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추가로 녹화에 가지고 올려둘 테니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게 왜냐면 이게 증권사 별로 ATS나 MTS 들어가시면

어렵게 설정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 증권 들어가시면 너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테니까 꼭 한 번 해보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 3가지 정도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다 가져갈거야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세 가지 정도는 찾기 한 번 해보시고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해보시면 아 진짜 이 안에서 왔다갔다 하네

95% 인 확률이 맞네

아 그러면 난 앞으로 투자할 때 요거 꼭 한번 켜놓고 활용 한 번 해봐야지

라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길용이와 함께 하는 주식 첫걸음 길용입니다

주식 어려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다른건 없고요

주식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따라만 하면 된다라는 컨셉이니까

복장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따라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해서 좀 챌린지 느낌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론으로만 하는 강의는 사실 별로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하나 끝나고 실제로 한번 해보고

나 이거 성공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강의가 진행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끝나고 나면 성공 축하 기념으로

유료 강의 공짜로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1주차 강의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계좌 개설하고

주식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어가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용어들을 저희가 한 번에 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아니구요

꼭 필요한 용어 몇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주식의 거래소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코스피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지

나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있어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야지

또 누군가는 팔고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어야 주가도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에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 거래량~ 이런게 거래량이 있구나 하는 것들

쉽게 한 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주식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주식 투자 어려운거 당연하고요

사실은 공부 안하고 주식투자를 하다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 같은데

공부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요

조금씩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식이 조금씩 재미있어지기 시작할겁니다

두 번째는요 종목 고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항상 제가 고른 종목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초보자들한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시장 흐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인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주식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같이 공부할 거고요

연습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종목 고르는 실력들도 같이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해 본다는 느낌으로 해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주식투자하고 싶은데 뭐 부터해야 될 지

당연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걸음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시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용어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용어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중의 하나가

매수/매도

지정가/시장가

시가/종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매수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식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주문 넣을거야 그러면

나는 이 가격에 주식 살 거야

라는 걸 뜻하는 거구요

매도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매하는걸 얘기하구요

예를 들면 나는 매도 주문 넣을거야 라는 뜻은

나 이 가격에 주식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지점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나의 주식을 살 거야 라는 건데

사실 원하는 가격이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주문이 체결이 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으로 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게 주문 체결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시가와 종가 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시가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처음으로 결정되는 시장

개장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개장되었을 때 시가는 얼마합니다라는 뜻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종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시장 마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전자 호가창을 띄워놨는데

호가창이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호가창은 이렇게 빨간 불과 하단 불이 있고요

그 안에 가격들이 막 나와있는 것들을 호가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가격들이 많이 변동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구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요

매도가 많으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가창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결강도라는 거예요

체결강도라는 것은 호가창에 보시면

체결강도가 얼마입니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체결 강도라는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세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냐

쉽게 설명하자면 사는 사람이 더 많냐 파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더 많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결 비율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숫자로 나오는데요

체결 비율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숫자로 나오는데요

100보다 만약에 숫자가 낮다

90 이다, 80이다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요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구요

반대로 100보다는 높다 110이다 120이다 라고 하면

매수세가 더 강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 오늘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은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선/저항선입니다.

거래량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된 총 주식 수를 얘기를 하구요

거래량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아 ~ 오늘이 시장의 세기가 얼마나 쎄느냐, 약하느냐를

]파악할 수 있고

트렌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산 주식이 포함된 업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 적냐

많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많을 거구요

적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건데

이동평균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건데

이렇게 선으로 많이, 색깔별로 구분이 조금 돼요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은

5일부터 120일 까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5일, 10일, 20일 같이

20일 이내의 선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60일은 중기, 120일은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앞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구나, 올라가는 추세구나

떨어지는 추세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지선과 저항선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건데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라는 것들을 멈춰주는 구간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지점을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구요

저항선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이 가격이 상승할 때

항상 이 부근을 넘지 못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이 저항선에 가까워질수록 멈추거나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래량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볼건데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의 그림과 아래쪽의 그림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날의 주식의 가격의 흐름이 표시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기가 길다?

거래가 많았다

막대기가 짧다?

거래가 적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봉 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구요

그런데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볼 때 저희가 왼쪽 것을 생각해보세요

첫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는데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째날에 비해서 어찌됐건 저가권에서 시작은 했는데

여기에 많은 거래량이 포함이 되면서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구나

그럼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찌 됐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가에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되면

크게 호재로 작용해서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 상에서 우측을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위치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래량이 파란색으로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겠죠

이 떨어지는 게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다보니까

첫째날

첫째날 둘째날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그 근처에 비해서 거래량이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구나

아니면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권에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고가권에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하락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초 용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영어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멈추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항상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EPS/PER

PER에 대해서 찾아볼텐데

EPS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써 있죠? (Earnigs Per Share)

영어 잘 못 합니다

그냥 주당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들었느냐

순이익이 얼마냐

쉽게 설명하자면 EPS가 높은 기업들은

좋은 기업

EPS가 낮은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쓰는데

퍼라고도 얘기를 많이합니다

이거는 주가수익비율인데

이 기업의 주가를 앞에서 얘기했던 주당순이익

앞에서 한 번 얘기를 했었죠

이 주당순이익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상대적으로 PER이 낮다

그러면 벌어들이는 수익 비율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위치다

PER가 높다

높은 위치다

좋은 기업들은 PER이 낮은 기업이 어찌됐건 좀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는 PBR과 RO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거구요

비비아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순자산비율로

기업의 주가를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재무비율인데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자산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OA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은 얼마나 많은 이익이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ROE입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익률로

주주들이

예를 들면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내가 투자한 자금으로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를

나타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ROE도 보이구요

ROA도 보이구요

EPS도 보이고 PER, PBR도 보이죠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PER이 낮은 기업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해요

EPS같은 경우가 되게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대한 성장성도 좋긴하지만

수익성도 갖춰져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안전하게 잘 갑니다

그래서 고르는 팁은

EPS 높고 PER은 낮은 기업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해라

앞부분에서 바로 ROE에서

저희가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재무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 였느냐인데

이 비율이 15%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며

안전하게 내 돈을 잘 불리면서 안전하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되면 주식투자 시작해봐도 될까?

라는 의문과 용기와 두려움이 공존하실텐데요

시작이 반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계좌 개설 먼저 하구요

그 다음 차근차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인데 우선 앞에서 저희가 계좌 만들었죠

계좌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숙제입니다

호가창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호가창에 들어가서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체결강도는 어떤지를 확인해보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를

한 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렵지 않고요

MTS 들어가서 투자 정보, 기업분석, 재무분석 종합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삼성전자라고 검색하시면

이 회사의 PER은 얼마고 그 다음에 EPS는 얼마고

ROE는 몇 %다 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펀드랑 ETF랑 차이가 뭐야?

펀드랑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을 여러 개를 묶어놓은 바구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둘 다 펀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은행 증권사 통해서 가입하고

판매를 해야 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장외거래하는 거

ETF는 장내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한테

저희가 맡기는 거고요

그걸 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문가가 이 안에 어떤 기업을 담을지는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맡기는 게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해요

상장돼 있는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수라는 거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S&P 500

같은 지수형 ETF도 있고

산업이나 IT나 반도체처럼

이렇게 특정 섹터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ETF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나

최근 들어서 핫한 AI 같은 테마들을

묶어서 하는 ETF도 있어서

펀드보다는 종류가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거래하기가 쉬운 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자면

ETF 펀드 주식 차이점이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투명성이라는 거는

야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확인하기가 쉬워

어려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ETF랑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낮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매도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주식이랑 ETF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틀 정도면 되는데 펀드는 환매하고 나서

3일에서 늦게는 8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게

ETF와 주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도 조금 다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거래를 할 때

수수료와 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두 합치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Max 한 3% 정도까지 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입니다

반대로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 정도만 내면 되니까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식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ETF 제일 높은 게

펀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금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본인들에게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당연히 제일 높고요

근데 안전한데 세금을 적게

내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ETF를 선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펀드를

어떻게 한번 골라볼까요?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로서

본인이 사고 팔고를

모두 선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력이나 경력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또 이직 횟수도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직 횟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이직 횟수가 많다라는 거는

이 펀드를 끝까지 책임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낮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조금 하셔도 되고요

과거의 수익률이 모두

미래의 수익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냈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남들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조금 더 내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는 걸

표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 펀드를 고를 때

그 안에 있는 펀드 매니저의 이력이나

이직횟수나 과거 수익률 같은 경우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요

비용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만약에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운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남 좋은 일이라는 건

펀드 매니저랑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같이

수수료를 받아먹는 회사들만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펀드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수수료라고 적힌 부분도 있고

보수라고 적힌 부분도 있어요

수수료는 뭐냐 한 번 내는 거,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에 먼저 떼는 거 나중에 떼는 거

선취 수수료하고

후취 수수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내가 만약에 길게 운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선취 수수료가 이득이고요

짧게 운용할 거야라고 하면

후취 수수료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수라는 거는

매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적게 떼고 보수도 적게 떼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것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

펀드 비교하는 화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펀드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특히 주린이들이

펀드를 고를 때 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너무 많고

안에 글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를

등급을 나눕니다

근데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태극 마크로 등급을 조금 많이 나누는데

전체가 총 4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극마크가 만약에 5개가 있는데

다 비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거구나

4개 차 있다 얘는 안전하게

그래도 수익을 다른 애들보다는 잘 내네

5개다

최근에 이 친구가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구분도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쉽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펀드도 분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펀드 내에서도 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별로도

조금 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펀드

아니면 중국이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 도상국이라고 있죠

개도국에 투자하는 펀드들

이렇게 골고루 자산을 배분을 하셔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난 그건 되고 요즘에 핫한 거에

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게

잡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는 앞에서 ETF나 펀드 말씀드렸지만

1개 섹터나 1개 업종이나 아니면 1개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나 ETF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TF 고르는 법입니다

ETF는 우선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펀드랑 비슷하기는 해요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원자재 ETF, 통화 ETF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업들에게

조금 베팅을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경우

주식형 ETF 하시면 되고요

안정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건

또 채권형이거든요

나는 안전한 걸 원한다

채권형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유 그다음에 금, 구리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모아놓은 ETF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규모라는 걸 체크해보라고 하는데

심플합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HTS나 MTS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사이즈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4 종류가 있다고

현대차가 있고요

현대차우가 있고요

현대차 2우B, 3우B 총 4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거래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팔고 싶을 때 팔고요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면

제가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황금성 쉽게 돈으로 바꾸는 시간 자체가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은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많아야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돈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순자산가치 괴리율이라는 게 ETF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TF라는 거는 예를 들면 주식형이라고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 기업들을 모아놓은 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걸 ETF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안에 있던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순자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따라잡는 걸

괴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자산가치는 가치가 당연히 높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순자산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차이가 적은 괴리율이 낮은 ETF가

훨씬 더 알짜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나한테

맞는 걸 고르시면 되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도 규모가 큰 거래량이 많은

마지막으로는 순자산가치는 높고

괴리율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는

ETF를 고르시면 좋습니다

비교는 필수라는 말 자주 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도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TF CHECK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ETF에 대한 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형 그다음에 기초지수를 뭘 쓰는 건지

기초지수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S&P500,

나스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에서도

여러 가지 수수료와 보수를

낮은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총보수 다 확인 가능하고요

어디에서 발행했는지 상장일은 언제인지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랭킹도 매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1등인 데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잖아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잘했던 놈이

앞으로 더 잘할 확률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로도 랭킹을 매기고요

배당으로도 랭킹을 매기고요

최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ETF는

뭐야라는 것도 랭킹이 돼 있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제일 큰 건 또 어디야

이렇게 해서 랭킹을 다 따로 정리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인기 많은 거 나도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배당 ETF만 모아서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ETF만 모아서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ETF만 모아서

모아서 쭈르륵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몇 가지 나한테 맞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니까 ETF CHECK라는 비교 사이트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펀드와 ETF를 한번 찾아볼 건데

크게 보면은 펀드는

금융투자협회와 펀드 슈퍼마켓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는

ETF CHECK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수수료는 낮고 수익률은 안정적이면서

분산 투자가 되는

펀드나 ETF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펀드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투자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소 2년은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짜리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또는 2년짜리 예금 든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보셔야지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적금 들, 예금들 펀드나 ETF

꼭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길룡입니다

오늘의 질문 한 번 볼까요?

주식에서 중요한건 거래량이다

정말 거래량이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주식투자하는데 있어서

거래량은 주가변동 예측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실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꾸준하게 가는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식시장에서 매매의 주식의 수량을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한 거래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란 뭐냐면

첫번째는요

상승과 하락 신호를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거래량과 주가 상승이 만약에 같이 온다면

상승 신호

하락이 같이 온다

‘하락 신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에서 얼마나 유동성이 있느냐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얼마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사고 싶을 때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좋은

즉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가변동성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고팔고를 싸우다 보면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변동성이 많다 라는 거고

변동성이 많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거나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수익을 볼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추세라는 것들은 주식 시장에서 조금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추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상향한다?

상승추세

우하향한다?

하락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고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이 추세를 확인하기 쉬워요

추세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쉽다는 것은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이거는 상승추세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예측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주식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현대차 주식은 총 네 가지 주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 그룹에 전체적인 주식을 대표하는 보통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차우가 있습니다

현대차우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인데

옛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 라는 것은 배당률이랑 상관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 하고요

최저 배당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보다는

일정하게 배당을 더 주는 주식을 현대차우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현대차2우B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1996년 이후에 발행한 신형 우선주인데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주 보다 2% 더 준다

배당을 더 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3우B 있습니다

3우B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보통주 보다 1% 더 배당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주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보통주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3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배당금을 주느냐 마느냐

주가에 영향이 많냐 적냐를 보시면 되는데

보통주랑 우선주는 의결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주가 더 좋습니다

주주총회가서 ‘저 투표할게요’ 하는 걸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금을 할 때는요 보통주 보다 우선주가 돈을 더 줍니다

앞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현대차2우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보다 2% 더 준다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우선주는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로 본다고 하면 보통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주 보다는

보통주의 주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주식의 종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보통주냐 우선주냐를 먼저 구분을 해보시고

나는 안전하게 배당금 받는 게 더 좋아라고 하면

의결권 필요없어

돈만 많이 주면 돼 라고 하면 우선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별로 거래량 차이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 주식 보통주죠

단위 보이십니까?

백만

천만

억

2억 주가 넘습니다

현대차우 같은 경우에는

천만 단위입니다

2천4백만 정도 되고요

2우B는 3천6백만 주입니다

3우B는요 240만주 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거래량 얘기할 때 유동성 알려드렸어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현대차3우B 같은 경우에는 240만주 밖에 안 되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배당주 투자 하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현대차3우B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고 싶어도 사질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은데 못파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거래량이 높은 주식이 유동성이 좋다

유동성이 좋아야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

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구요

앞에서도 배당금 뿐만 아니라

거래량으로도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현대차를 예를 드리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그날그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날 그날 거래량 상위 종목이 뜹니다

그럼 다섯 종목 저희 한 번 찾아보고요

하위 다섯 종목도 똑같이 찾아보고요

앞에서 제가 현대차 비교해드렸죠

보통주 우선주 2우B 3우B

그런데 이 거래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MTS나 네이버 페이 증권 정보 들어가셔서

내용을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맞다 틀리다 이런건 조금 더 찾아봐라 틀린 것 같다

라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숙제 꼭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룡이에게 물어봐

오늘의 질문입니다

경제 관련 신문 말고 책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책은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책을 왜 읽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도서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읽다보면

저희가 가리킬 때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경제적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경제 책은 경제적 사고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이게 사고력 발달에 좋으니까

자주 읽는게 좋습니다

추천해드릴만한 책들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주변에 많이 추천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투자 잘하는 기술 방법

이런 것보다는 사실 기존의 선배님들이

이런이런 경험담들

그리고 이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극복을 했어

또는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터린치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9% 써 있잖아요

지금 1977년부터 90년도까지

피델리티에서 펀드를 운용하셨는데

연 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그래서 1800만 달러였던 것을

140억 달러로 만든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연 평균 수익률은

5%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 십 몇 년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29%를 했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상 생활에서 발견하는 걸로 주식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코카콜라 마시다가

코카콜라야? 펩시야?

마트를 갔는데

월마트가 훨씬 될 수밖에 없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들로 아이디어를 찾아서

수익을 많이 낸 대표적인 펀드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 게 실제라고 썼는데

주식을 사실은 그냥 투자의 용도로만 생각하고

차트만 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확한 예측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단순히 거래대상이 아니다

실제 기업의 일부가 주식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상태

다음에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수익성

그 다음에

현재 코카콜라 펩시처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요즘에

ESG ESG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체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이걸 보면 내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 이거보다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벤자민 그레이엄

어디선가 한 번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는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 분의 스승이십니다

자 당시에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때

아무리 잘 가는 기업들도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청산 끝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NCAV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뭔소리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산가치를요 순유동자산 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동자산에서 그냥 부채 뺀 거거든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현재의 시가총액보다 1.5배 이상이다

라고 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본인들이 팔아서

청산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가지고 있는 거를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팔았는데 남는 게 본전도 아니야

0.8배 이하야 그럼 매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바운더리 내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투자의 방법 중의 하나가 또 이 순유동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ARKET WIZARDS 잭 슈웨거 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또 유명합니다

55명 이분도 트레이드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당시에 활동했던

트레이더들 55인의 성공 법칙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보다보면

하나를 깊게 하면 좀 내용을 보다보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55명의 스토리를 후다닥 볼 수 있어서

본인들한테 맞는 사람들을 잘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명언중에 하나가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매매일지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이걸 하려면 실패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으려면 매매일지를 꼭 써야 되고요

매매일지를 쓰면 좋은 점은 이겁니다

자제력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와도

여기 휘청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매일지를 꼭 작성해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 매매일지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이로 써야 되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요즘 시대가 종이에 다 쓰시는 것 보다는 블로그에 쓰시면 되요

개인 블로그를 하나씩은 만드시고 비공개로 저장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거, 읽은 책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거기에는 날짜도 찍혀있고요

또 하나를 알려드리면

그 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뉴스들도

같이 링크를 해서 첨부 해두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꼭 한 번씩 들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목도 잘 지으셨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라는 분이시고요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셨답니다

철학, 미술사

대부분 경제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돈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감성적인 면들이 많은데

이 감성적인 게 숫자랑 만났을 때도

아 이게 나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제라는게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얘기하신 말씀인데

주식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리고 뒤에 10년 뒤에 깨어나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거다

이게 조금 와 닿는 게 초보투자자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딱 사게 되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올랐냐 떨어졌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사야 돼? 팔아야 돼?

감정에 막 휘둘리고 주변 소문에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사면요

신경을 꺼라

어차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부자가 돼 있을 거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포인트를 잡는 건데

주식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팔 것이냐에 대한 명언인데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된다

반대로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 주변 사람들이 원래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야 그거 어때?

라고 하면 저는 그때 팝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소문들만 가지고

막 달라붙기 시작할 때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런데 이 올라갈 때가 바보들이 많아서 끌어 올리는데

반대로 정신을 차리면 확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보들을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정해 두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제가 아까 매매일지 할 때 팁 하나 알려드렸죠

책 뭐든 좋습니다

주식, 재테크, 투자 관련된 뭐든 좋고요

아니면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는 거고요

블로그에다가 비공개로 소감 작성해가지고 캡쳐해가지고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길룡입니다

오늘은 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게 궁금한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저는 이게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주변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대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랑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상장하기 위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조금 어렵고

중소기업은 쉬운 것처럼

코스피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이랑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꼭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것보다는요

투자하는 시기에 따라서

코스피가 좋을 때도 있고

코스닥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한번 잘 공부해서 맞춰보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써 있죠 Korea 써 있고

마지막에 Price Index라고 써 있잖아요

한글로 해석하자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시작이 되는 지수는요

1980년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가 100이에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어가고 있으면

그때에 대비해서

현재 시장이 26배가 올랐구나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우량주가 대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코스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회사가 있고요

조금 비실비실한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량주는 체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을

우량 기업 그래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우량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체력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역대 1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쫙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0년대는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코스피 1위였고요

90년대부터는요 쭉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코스닥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안전하게 가는 애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1990년도 이후부터는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반이다라는 게

역대 1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량주 얘기했죠

역대 1위에 보면 현대차, 삼성전자 있죠

두 개 합쳐보면 어때요?

안전해 보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안정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스피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냥 전체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성 생각하시면

항상 저희가 반대 급부로 오는 게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제 돈을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시장만큼만 난 벌어도 돼

은행보다만 조금 나으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게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는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나스닥을 본떠 만든 게

코스닥입니다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나스닥 코스닥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우량주가 아니라 유망주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지금은 대형 선수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벤처나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역대 1위를

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2천년도에는요 다음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음 카카오라고 얘기하는데

인터넷 포털 00년 때부터

사실은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그때 당시에는 1위였고요

05년이 넘어가면서

통신의 시대가 사실은 조금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LG U+로 바뀌었지만

LG 텔레콤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부터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했구나라는 게

이걸 보면 또 보이실 거고요

22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현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역대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LG텔레콤 현재 LG 유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전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전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다

유망주에서 우량주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또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정성을 얘기했죠

코스닥은 성장성

그래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유망주들이 조금 많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더 내 성향에 맞아

난 그리고 지금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게 코스닥인데

사실상 저희가 변동성은 높음이라고 썼잖아요

많이 올라가지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코스피, 코스닥을 얘기했지만

지수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수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 종목들, 코스피 안에 여러 종목들이 있고요

코스닥 안에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다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걸 지수라고 하고요

아까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2600이라고 하면

1980년대보다 현재는 26배 시장이 커졌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고요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안정성을 가지고 있죠

주가 변동성이 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높아요

그러니까 다 반대입니다

코스피는 수익률이 낮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위험성은 낮고

또 반대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의 거

지금 2월 초 기준으로

코스피의 그래프와 코스닥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야 모양으로 보니까

변동성이 거의 낮다라고 했는데

코스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뭔 차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왼쪽 숫자를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도 2,250선이었고요

많이 올라갈 때도 2,600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변동률이 10%대인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10~720대까지 떨어졌다가

반대로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90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변동성이 3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의 수익이

안전하게 간다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가 조금 더 어울리시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본인의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입니다

들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MTS 본인 손 안에 계좌를

한번 개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뭐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코스닥 상위 종목은 또 뭐가 있지?

앞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꼭 한번 찾아보시고 해당 종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까지 찾아보고 숙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는 MTS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핸드폰에 증권사 어플 까셔서

이 안에서 보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추가로 다른 데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어플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서 증권 정보 확인하는 법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뉴스봇이 있습니다

이 뉴스 보에다가 해당 종목을 검색하시면

바로 뉴스가 서칭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캡처해서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룡이에게 물어봐 오늘의 질문입니다

길룡이가 없으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돼?

계속 따라다녀야죠 뭘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즐겨찾기 하시면 되는데

즐겨찾기 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야 주식 투자 못해

기관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조금은 더 알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 못한다라는 시대는 아닙니다

공부할 생각이 없이 투자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정보를 찾을 데는 많으니까 집중하세요

크게 정리해 놨습니다

7가지입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 세이브로

더벨, DART 전자공시, 인베스팅닷컴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 통계 시스템(ECOS) 7가지는요

제가 만약에 주식 한다라고 하면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제 컴퓨터에는

꼭 즐겨찾기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페이 증권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 작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귀찮다면 하나로 편리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식 종합 정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뉴스도 나오고요

오늘 상위 거래 종목,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국내, 해외, 그다음에 리포트

굉장히 많은 것들을요

네이버 페이 증권 하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앞에서 저희가 볼린저 밴드 숙제하고 오셨죠?

이 차트 분석 도구, 보조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증권사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해놨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 안에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활용하셔도

본인의 투자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다음은 세이브로입니다

세이브로의 포인트는 3줄 요약이에요

요약이라고 해서 정보가 적은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주식, 채권, 펀드, ETF

굉장히 많은 것들의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증권사별로 정말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끔 이제 저희가 고민하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거 요약해갖고 알려주면 안 돼?

요즘에 AI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세이브로에 들어가시면

무지 많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각각 3줄로 심플하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증권사별로 사실은 목표 주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의 목표주가를 어디는 5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7만 원 하는데

보니까 7만 원이 제일 많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들의 목표 주가는

7만 원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평균 목표주가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세이브로 꼭 즐겨찾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더벨입니다

무료지만 디테일합니다

경제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경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야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리포트 그대로 벗겨다 썼구만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더벨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기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증권사 찌라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알짜 정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들은 조금 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더벨을 들어가시면

뉴스에 알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만 보셔도요 충분하니까

굳이 유료 결제는 안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DART

(던지는) 다트 말고 DART 전자공입니다

무조건 체크하려면 다트입니다

금감원에서 하는 거고요

공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사다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한 번에 모든 상장 법인들의

모든 공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공시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KIND라는 것도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하는 건 DART

한국거래소 하는 건 KIND

거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추가 정보들을

노출할 때도 있으니까

둘 다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상장 안 된 기업들은 못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 투자

요즘에 이제 주린이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요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패스하세요

다음으로 인베스팅 닷컴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글로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국가별 주요 일정

캘린더를 확인을 해요

이렇게 증권 경제 방송이나

유튜브들을 보다 보면은

다음 주에 이런 이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다 봅니다

그럼 이거 좋은 점은 이거예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따라하는 것보다는

미리 일정을 알고 있으면

관련 종목들이 왜 안 움직였지

그럼 이거 좀 사볼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 스케줄을 알고 싶다

무조건 인베스팅 닷컴입니다

비트코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인베스팅닷컴 들어가시면

암호화폐 관련 차트, 뉴스

이런 것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재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금속, 농산물, 육류,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금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여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련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원자재 궁금하다 인베스팅 닷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통계 포털 KOSIS 입니다

기자들이 보는 데에요

국내/국제 다양한 통계 자료 다 나오고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것들이

다 제공이 되다 보니까 경제 전문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통계 사이트입니다

검색 기능도 있어서요

통계 자료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그래프화 시킨다든지

차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만 나오면

이거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내에서

아예 눈으로 보기 쉽게 돼 있으니까

캡처해가지고

제가 블로그 비공개 말씀드린 적 있죠

갖다가 자료들을 미리 백업을 많이 해두시면은

나중에 거의 경제 전문 기자급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입니다

각종 보고서 통계 자료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지만 마시고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블로그 비공개에다가

계속 첨부 파일로 올려두세요

다음으로 경제통계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필수입니다

경제 뉴스 기자 앞에서 얘기했죠

뉴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할 때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GDP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가 어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숫자들에 따라서 그날의, 그주의

그달의 주가의 방향성이

추세가 확인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예요

통계 간행물들 앞에서 다운로드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월간, 반기, 연간으로 해서

구분해서 자료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일간지, 주간지 말씀드렸던 적 있죠

일간지에서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와

주간지, 월간지 다르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월간, 반기, 연간에 따라서 저희가 1년의 방향

6개월의 방향, 매달의 방향성

따로 전략 짜 올 수 있으니까 꼭 다운 받아서

내 거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어렵지 않아요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꼭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캡처해서 제출하세요